

## <현대미술 속으로>

김정희(서울대 미술대학 서양화과 교수)

### 4. 모더니즘의 확산

20세기 초에는 아방가르드 미술이 프랑스 파리와 독일의 드레스덴을 중심으로 태동한 반면, 1910년 전후에는 서유럽의 다른 도시들을 넘어 러시아와 미국에서도 아방가르드를 표방한 미술 운동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진행되는 미술 양식도 많아졌고, 대표적인 미술가들의 국적도 다양해짐.

1909년 2월 20일에는 이태리 시인 Filippo Tommaso Emilio Marinetti가 파리에서 *Le Figaro* 지에 선언서를 발표하면서 **미래주의**의 시작을 알림. 미래주의는 미술만이 아니라 문학, 음악, 연극, 영화, 사진,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과거와 단절하고 위험, 거칠음, 움직임, 속도, 기계, 더 나아가서는 전쟁을 찬양한 선언서가 발표된 예술을 넘은 사회적, 정치적 운동이었음. 미래주의자들은 정신적으로는 Friedrich Nietzsche와 무정부주의자들, 상징주의자들의 영향을, 조형적으로는 쇠라의 채색방식인 Divisionism을 수용했으며, Henri Bergson의 철학의 바탕인 "생명의 도약을 이루는 근원적인 힘"인 élan vital 개념, 물질, 시간과 공간 개념을 표현하려 노력. 미래주의는 마리네티가 사망한 1944년까지 유지됐지만, 그의 국수주의적 성향으로 미래주의 미술가의 대변인 역할을 한 Umberto Boccioni가 사망한 1914년 전후로 구분됨.

미래주의는 1910년대 초 영국과 러시아로 확산되었고, 그 이후 유럽만이 아니라 미국 미술에도 영향을 줌. 이 나라들에서는 일반적으로 미래주의가 그것이 입체파 회화와 공통적으로 가진 특징인 많은 작은 형태가 불규칙적으로 채운 화면을 통해 절충주의적으로 수용되었는데, 영국에서는 소용돌이파(**Vorticism**)로 불림. 이 명칭은 시인 Ezra Pound가 만들었으며, 1914년부터 시작됨. 1913년 런던에서 개인전을 연 Gino Severini의 회화와 글이 큰 영향을 줌. 러시아에서는 광선주의(**Rayonism**)와 **Cubo-Futurism**으로 불림. 전자는 모스크바를 방문한 마리네티의 강의를 들은 Mikhail Larionov와 Natalia Goncharova가 1911년부터 발전시킨 양식으로 다이내미즘을 표현. 이들 역시 기계미학과 전쟁을 찬양. 특히 라리오노프는 미래주의의 조형요소인 "힘선(linee-forza)"을 통해 추상 회화 제작. Kazimir Malevich가 1914년 절대주의를 시작하기 전에 거친 Cubo-Futurism은 그가 1912년부터 초기 입체파적 형태와 미래주의의 색채와 다이내미즘을 결합해 자연주의를 벗어나려 한 양식임. 이것은 구축주의(**Constructivism**)로 발전함. 청기사파 화가 Franz Mark, 1910년대 독일에서 활동한 미국화가 Lyonel Feininger, 1910년대 말 이후 1930년대 초까지 미국에서 유행한 Precisionism으로 불리는 미술에도 영향을 줌.

한편 1911년에는 러시아 출신 미술가로 제안 받은 에스토니아 교수직을 거절하고 화가가 되기 위해 30세이던 1896년 뮌헨에 온 Wassily Kandinsky가 1909년 자신이 공동창립자이자 회장인 <신미술가연합 뮌헨>을 그의 '급진성' 때문에 탈퇴하고 Franz Marc, August Macke, Gabriele Münter, Alexei von Jawlensky 등과 함께 **청기사파(Der Blaue Reiter)**를 결성한 후, 그해 12월과 1912년 2-3월에 전시 후 해체. 두 번째 전시는 독일 도시 순회. 회원 외에도 다른 여러 미술가의 작품 전시. 칸딘스키는 1910년부터 1913년 사이 추상회화를 그리게 됨.

## 추상(abstraction)

정의: 라틴어 어원에 따라 "엄격히 단어적인 의미로 가시적인 현실과의 어떤 관계도 제거시키고 단지 자체가 근본적인 매체인 형태, 색채와 선의 발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묘사, 인식 가능한 세계를 많건 적건 객관적으로 재생하거나 이 세계를 참조한 미술의 반대"로 정의. 자체가 근본적인 매체 개념은 색채와 형태의 자율성 개념임. 이것은 1939년 클레멘트 그린버그의 논문 「아방가르드와 키치」에서는 형식주의적인 순수성 개념으로 축소됨.

미술사에서는 추상미술의 "선구자"로 칸딘스키, 몬드리안(Piet Mondrian), 말레비치(Kasimir Malevich)를 들. 칸딘스키는 자신의 추상 미술을 "사실주의의 반대", "비대상적 회화" 몬드리안은 "비대상적 미술", 말레비치는 "비형상적 회화", "새로운 사실주의", "절대주의"로 칭함. 칸딘스키와 몬드리안은 신지학의 영향을 받음.

"내적 필연성"을 강조한 칸딘스키의 추상개념은 1908년에 나온 Wilhelm Worringer의 『추상과 감정이입』과 유사. "자연적인 아름다움은 더 이상 미술작품의 조건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주장한 보링거는 자연 묘사에 대한 흥미를 가지기 전 인간은 추상 본능을 지녔다고 보았으며 모방이 미술 형식으로 된 것은 오랜 역사에 걸쳐 주변의 자연에 대한 친밀함과 모방을 통한 감정이입에 의한 것이라고 봄. 칸딘스키가 외부세계와의 갈등에서 시작해서 육안이 아니라 "내적 울림"에 따라 그린 것은 보링거의 추상과 같은 개념임.

몬드리안은 1911년 브라크의 분석적 큐비즘 작품을 본 후 세잔의 그림과 자연을 수직, 수평선과 3원색과 흑색과 백으로 단순화하면서 1920년에 신조형주의라고 부른 추상에 도달. 칸딘스키는 몬드리안식의 기하학적인 작품을 장식적이라고 칭했고 후자는 전자의 그림이 3차원적 공간을 보여줘 추상미술의 2차원성을 무시한다고 봄. 로젠탈이 몬드리안의 작품을 "정확한 아폴로적 엄격함, 통제 및 탁월한 구성적 고안"이라고 칭함. 이들 미술의 이러한 구별은 알프레드 바의 다이어그램에 영향을 미쳐 이후 미술사에 과도하게 반영됨.

## 오브제(objet, object) 미술

오브제 미술은 회화의 환영을 거부하고 회화가 작품이라는 사물(tableau objet)로 이해되기를 바란 큐비스트들에 의해 고안된 콜라주로부터 시작됨. 작품을 환영의 창조가 아니라 오브제로 보여주려는 시도는 1913년 Marcel Duchamp이 자전거 바퀴를 요리용 의자에 꽂은 것으로 이어짐. 미술사에서 오브제 미술이란 사물을 묘사하여 미술 속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사물 그 자체를 미술작품화한 것임. 이때 사물은 그것에게 친숙한 환경에서 떨어져 나와 그것의 원래의 맥락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맥락으로 사용됨. 뒤샹은 주변의 일상용 기성품을 작품으로 만듦으로써 서양미술에서 상징, 알레고리 혹은 기록 등의 목적을 위한 모방이나 재현의 대상에 지나지 않았던 사물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킴. 그는 기성품(readymade)들을 유용성의 대상으로 보는 방식을 거부함. 즉 그는 한 사물(object)이 만들어진 이유인 쓸모(용도)를 무시하고,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볼 것을 제시. 이것은 사물과의 관계에서 절대성을 부정한 것으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의 영향이자, 그것에 대한 지식의 결과로 나옴. 사물의 절대적 가치 거부하는 멀리는 니체가 1886년에 출간한 『선과 악의 저편』에서 밝힌 우리가 "안다"는 것에 대한 믿음에 대해 질문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연결 가능. 오브제 미술을 통해 일상적인 물건이 미술로 '신성화'되고, 무엇이 미술인가라는 질문이 어떻게 미술이 되는가라는 질문으로 대체됨.